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6.7

##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속 미·중 정부 정책 기대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금요일 악재성 재료로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되돌림이 유입되며 상승 출발. 특히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바이든 정부의 클린 에너지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태양광, 2차 전지, 중국 기술주 등이 급등. 그렇지만,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은 인플레이’ 기대로 3%를 상회하자 한 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확대한 가운데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다우 +0.05%, 나스닥 +0.40%, S&P500 +0.31%, 러셀2000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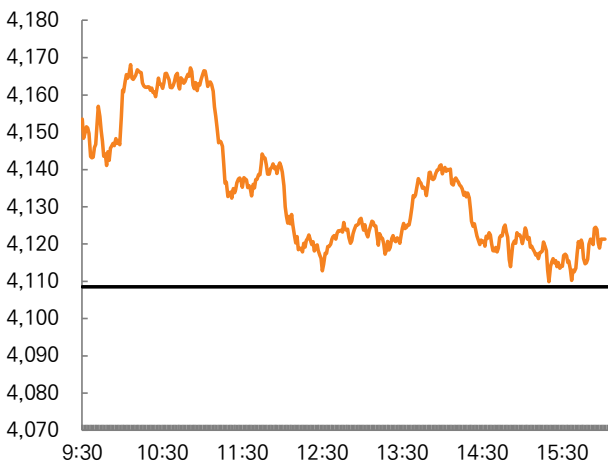
### 특이 종목

- 디디글로벌(+24.32%)은 중국 정부가 조사를 종료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중단 조치를 해제할 계획 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이 소식으로 중국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로 알리바바(+6.22%), JD닷컴(+6.53%)등 중국 기업들의 강세가 뚜렷. 아마존(+1.99%)은 주식분할 첫 거래일 한때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나 매물 소화되며 상승분 일부 반납. 알파벳(+1.99%)도 주식분할 앞두고 강세.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소식을 전하자 징코솔라(+7.98%), 인페이즈 에너지(+5.41%) 등이 강세

###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지난 금요일 2.30% 하락에 이어 0.13%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지난 금요일 1.63% 하락 후 0.5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4.9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지난 금요일 1.02% 하락했으나 오늘은 휴장. KOSPI는 이를 감안하면 0.7%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지난 금요일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월요일 아시아 시장이 중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로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와 함께 월요일 미 증시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 또한 우호적.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0.73%)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 소식은 부담. 더불어 달러 강세 여파로 원화의 약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줘 주식시장에 부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 후 업종 및 종목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670.65	휴장	상해종합	3,236.37	+1.28
KOSDAQ	891.51	휴장	홍콩항셱	21,653.90	+2.71
DOW	32,915.78	+0.05	베트남	1,290.01	+0.16
NASDAQ	12,061.37	+0.40	유로스톡스 50	3,838.42	+1.45
S&P 500	4,121.43	+0.31	영국	7,608.22	+1.00
캐나다	20,819.09	+0.14	독일	14,653.81	+1.34
일본	27,915.89	+0.56	프랑스	6,548.78	+0.9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되돌림과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 개별 업종 장세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견고한 고용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발언과 일부 대형 기술주의 악재성 재료로 하락.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하반기 중국 성장률이 목표했던 5%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되돌림이 유입되며 월요일 나스닥이 장 중 한때 2% 가까이 상승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임

이런 가운데, 미국 기술주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에 근접하자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사우디의 아람코가 아시아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기존의 4.4달러에서 6.5달러로 큰 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WTI가 120달러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 이 여파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분을 반납.

그러나 지난 금요일 글로벌 소비자 사업부문 대표의 사임 소식으로 하락했던 아마존(+1.99%)이 오늘은 주식분할 첫 거래일을 맞아 상승했으며 알파벳(+1.99%)도 동반 강세. 앱스토어 매출 성장 둔화 우려로 하락했던 애플(+0.52%)은 개발자 회의에서의 iOS 16, M2칩 발표 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전망 속 상승하는 등 지난 금요일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강세가 특징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소식과 클린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계획이 알려지자 태양광 업종은 물론, 전기차, 2차 전지 업종 등도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 이슈에 민감한 반응. 한편,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추싱(+24.32%)에 대한 안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중단 등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 알려지자 알리바바(+6.22%)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급등한 점도 특징

대체로 시장 참여자들은 큰 틀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 속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다만, 호재성 재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방향성 없이 개별 업종/종목 차별화가 진행되는 경향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중국 기업, 태양광 강세 Vs. 반도체 부진

디디글로벌(+24.32%)은 중국 정부가 조사를 종료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중단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트럭 공유업체인 풀 트럭 얼라이언스(+3.19%)와 채용 플랫폼 회사인 칸준(+19.93%)도 조사 중단 소식에 강세. 이 소식으로 중국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로 알리바바(+6.22%), JD닷컴(+6.53%), 바이두(+2.49%) 등 중국 기업들의 강세가 뚜렷. 아마존(+1.99%)은 주식분할 첫 거래일 한때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나 매물 소화되며 상승분 일부 반납. 알파벳(+1.99%)도 주식분할 앞두고 강세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소식을 전하고 클린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방 물자 생산법 발동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썬파워(+2.72%), 징코솔라(+7.98%), 캐나다인 솔라(+7.58%) 등 태양광 업종이 강세. 인페이즈 에너지(+5.41%)도 수요 증가 소식까지 겹치며 강세를 이어감. 더불어 테슬라(+1.60%) 등 전기차 업종과 쿼텀 스케이프(+2.55%), 앨버말(+2.80%) 등 2차 전지 관련 업종도 동반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자 넷플릭스(-0.92%), 워너브라더스(-3.71%), 디즈니(-0.77%) 등 스트리밍 업종이 부진. 인텔(-0.12%)은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최근 마이크론(+0.73%)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점도 부담.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87	대형 가치주 ETF (IVE)	+0.18
에너지섹터 ETF (OIH)	+0.37	중형 가치주 ETF (IWS)	+0.36
소매업체 ETF (XLY)	+1.00	소형 가치주 ETF (IWN)	+0.59
온라인소매 ETF (EBIZ)	+2.41	대형 성장주 ETF (VUG)	+0.37
금융섹터 ETF (XLF)	+0.29	중형 성장주 ETF (IWP)	+0.40
기술섹터 ETF (XLK)	+0.01	소형 성장주 ETF (IWO)	+0.1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09	배당주 ETF (DVY)	+0.55
클라우드 ETF (CLOU)	+0.06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36
미국 리츠 ETF (VNQ)	-0.32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02
주택건설업체 ETF (XHB)	+0.48	미국 국채 ETF (IEF)	-0.65
바이오섹터 ETF (IBB)	-1.08	하이일드 ETF (JNK)	-0.65
헬스케어 ETF (XLV)	+0.02	물가연동채 ETF (TIP)	-0.65
곡물 ETF (DBA)	+1.3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1
반도체 ETF (SMH)	+0.08	모멘텀 ETF (MTUM)	+0.1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경기소비재	1,212.90	+1.03	+1.03	-1.33
통신	202.42	+0.98	+0.83	+1.14
소재	547.73	+0.97	-0.01	+3.15
유틸리티	377.41	+0.45	-0.94	+3.01
산업재	808.67	+0.40	+0.44	+0.16
금융	580.02	+0.38	-1.77	+0.53
필수소비재	764.90	+0.05	-1.67	-4.34
IT	2,443.41	+0.04	-1.09	-0.73
헬스케어	1,510.38	-0.00	-3.14	-0.08
에너지	676.16	-0.11	+1.07	+7.22
부동산	273.16	-0.29	-2.51	-2.5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부진한 모습 속 업종 차별화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지난 금요일 2.30% 하락에 이어 0.19%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지난 금요일 1.63% 하락 후 0.5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4.9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지난 금요일 1.02% 하락했으나 오늘은 휴장. KOSPI는 이를 감안하면 0.7%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높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 다만, 외국인 선물 순매수 속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는 유지한 가운데 개별 기업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지속. 이에 힘입어 KOSPI는 0.44%, KOSDAQ은 0.04%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지난 금요일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해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특히 월요일 아시아 시장이 중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로 금요일 미 증시 하락에도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와 함께 월요일 미 증시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 또한 우호적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0.73%)에 대해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가 DRAM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가 둔화될 경우 수요가 감소해 하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또한 90달러에서 70달러로 하향 조정한 점은 부담. 더불어 달러 강세 여파로 원화의 약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줘 주식시장에 부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 후 반도체 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2차전지, 전기차는 물론 중국 관련 업종의 경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견고한 미국 고용지표

미국 5월 고용동향지수는 지난달 발표(120.60) 보다 둔화된 119.77로 발표. 컨퍼런스보드는 비록 지수는 둔화되기는 했으나 견고한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한편, 전체 8개 부문 중 4개 부문이 하락해 향후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음

중국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발표(36.2)를 상회한 41.4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46.1보다는 부진.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기준선인 50을 하회. 다만, 일부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달러화, 엔화 약세로 강세

국제유가는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7월 인도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 WTI 기준 장 초반 12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음. 더 나아가 중국 봉쇄 완화 및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도 상승 요인.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소식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달러화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7월 25b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중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전환.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슨의 신임투표를 앞두고 강세 전환하기도 했으나 강세폭이 둔화. 엔화는 BOJ의 구로다 총재가 너무 급하지 않으면 엔화 약세는 긍정적이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

국채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정책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 특히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결과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약화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이에 힘입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기록

금은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 중국 경기 부양책에 기대 상승. 곡물은 밀이 프랑스 가뭄으로 유럽발 수확량 감소 우려 속 우크라이나의 곡물 반출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옥수수는 수출 증가 기대로 4일 연속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5% 하락, 철근은 0.2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8.50	-0.13	+3.17	Dollar Index	102.405	+0.26	+0.72
브렌트유	119.51	-0.02	+1.79	EUR/USD	1.0696	-0.21	-0.77
천연가스	9.32	+9.83	+7.26	USD/JPY	131.85	+0.74	+3.34
금	1,843.70	-0.31	-0.69	GBP/USD	1.2533	+0.36	-0.94
은	22.09	+0.88	+0.02	USD/CHF	0.9709	+0.91	+1.42
알루미늄	2,782.50	+2.07	-2.88	AUD/USD	0.7196	-0.15	0.00
전기동	9,745.00	+2.58	+4.19	USD/CAD	1.2575	-0.15	-0.63
아연	3,873.00	+0.22	+3.68	USD/RUB	61.3112	-3.23	-4.20
옥수수	742.50	+2.20	-4.41	USD/BRL	4.7961	+0.47	+0.88
밀	1,093.00	+5.48	-5.23	USD/CNH	6.6556	-0.00	-0.24
대두	1,699.25	+0.24	-1.76	USD/KRW	1,242.70	-0.75	-1.92
커피	237.55	+2.22	+3.53	USD/KRW NDF1M	1,254.94	+0.28	+1.5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38	+10.48	+30.02	스페인	2.483	+4.40	+35.20
한국	3.407	-1.30	+19.00	포르투갈	2.509	+3.50	+34.00
일본	0.245	+1.10	+0.80	그리스	3.882	+15.90	+34.90
독일	1.322	+4.90	+26.70	이탈리아	3.267	+1.10	+41.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